

화중부 목사 "건강한 교회는 사람 세워 분립개척하는 것"

우리가교회(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에서의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20일 오전 10시에 세계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의 본질과 건강한 목회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화중부 목사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양육과 구조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다. 그는 “교회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려 했지만, 9년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틀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익숙해진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한 후폭풍도 두려웠다”고 했다.

이후 남서울교회에 부임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는 화목사는 “생각보다 교회가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다. 양육과 봉사 구조가 함께 세워져 있었고,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며 “그때 ‘내가 놓친 것이 이것 이구나’ 깨달았다. 양육만 있고 실



우리가교회에서 화중부 목사를 초청해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한 “봉사와 양육 구조는 처음부터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사역 방식을 비교했다. “바울은 진리를 깊이 강해하고 때가 되면 삶에 적용하는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와 삶의 적용이 매우 빠르게 오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각개전투를 해왔다. 공동체가 아니면 사람은 진실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을 길러서 남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국교회는 우리가 잘되는 것을 30년 동안 했다.

여러분이 좋은 일꾼을 길러서 건강한 한인교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회에 소수가 바뀌면 교회 분위기가 바뀐다. 늘 꿈꾸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서 분립해 개척나가는 것이다. 남서울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좋은 부목사들이 배출되어서 좋은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한교회는 북한에 많은 빛을 쬐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남한교회는 없는 것”이라며 “받은 빛이 있으니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화목사는 “신앙은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예수의 방법”이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면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K-문화로 열린 길 위에 복음을 실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이 했다던 디어샴 세상이 감동을 못한다. 한국이 한다면 감동이 된다. 식민지 기간을 거치고 잿더미만 남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복음은 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됐다. 조국 교회에 다시 부흥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마스 멩 기자 → 2면에서 계속

종교 지도자들, “AI 자율무기 인간 통제 필요”... 美 의회에 입법 촉구

다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연합이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간의 개입 없이 살상 결정을 내리는 자율무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 의회에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공익 정책 옹호 단체인 ARI(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을 통해 공개됐으며, 총 2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미 상원 삼입위원회와 미 하원 국방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이자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서한을 보낸다”며 “군사 영역에서 AI 도구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국방부가 AI 기반 자율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빼앗는 최종 결정은 언제나 군 장병들이 직접 내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브리지 대학 산하 캠브리지 중앙아시아 포럼 연구원인 제럴드 마



튀르키예의 '카르구'. 소형 휴대용 쿼드콥터 체공형 무기로 비대칭 전쟁이나 대반란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다. © wikipedia.org

코(Gerald Mako)는 “The Lieber Institute for Law and Land Warfare” 보고서를 통해 자율무기 시스템이 국제인도법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코 연구원은 자율무기의 합법성이 제네바 협약과 추가의정서 I의 핵심 원칙인 구별성, 비례성, 예방 원칙, 마르텐스 조항 등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I가 개입되면서 기존 규범이 예상하지 못한 복잡성과 책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고, 부수적 피해와 군사적 이익을 비교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공격을 중단하는 판단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경우 국제인도법의 기본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AI가 통제하는 무기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군사 작전에 AI 시스템이 점점 더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무기에 대한 인간의 감독을 보장하는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기자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l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명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Academic Year 2026-2027
 북미주 개척교회(CRC) ALL NATIONS CHURCH
ANC 온누리 장학금 모집
 신청기간: 2026년 4월 15일 ~ 5월 31일
 제출마감: 2026년 5월 31일 Midnight
 신청서 및 접수: www.ancsf.us
 장학금 액수: ■ \$1,500 for Undergraduate Students, Community College Students
 ■ \$2,000 for Graduate Students, Theological Seminary Students
[자격 및 장학금 종류]
 1. 크리스천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고, 학부는 30세 이하, 대학원은 40세이하 (첨부서류: 추천서, 최근 성적표, 자기 소개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허가서)
 2.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College Scholarship (4year \$ 2Year)
 ■ Graduate Scholarship (Master & Ph.D)
 3. 선교사 자녀 / 목회자 자녀 Scholarship
[유의사항]
 1.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미비된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어떠한 이익제기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5. 문의 사항은 이메일 ancsfug@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
Scholarship Application
 ANC 장학회 website (www.ancsf.us)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C SCHOLARSHIP FOUNDATION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담당목사_김태형) WWW.ANCONNURI.COM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영락교회서 열린다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주최
5월 7일 목 오후 7시**

올해 국가기도의 날은 5월 7일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1721 N. Broadway, LA)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가기도의 날 연합 기도회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나성영락교회, 남가주한인음악협회가 주관하고, 청교도신앙회복운동, 월드쉐어 USA,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SOON 무브먼트글로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한다. 그외 다수 단체

가 협력한다.

이에 지난 21일(화) 미주성시화 운동본부(공동대표의장 송정명, 한기홍 목사)는 미주평안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가기도의 날은 ‘은 열방이 그를 찾아 영광을 선포하라(역대상 16:24)’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기도회는 1부 예배와 찬양, 2부 기도회로 구성되며 총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된다.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미국의 주요 현안(성경적 교육 회복 등)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과 차세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미주평안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가기도의 날의 주제와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기독교일보

대를 위하여 등이다. 또한 중동 전쟁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 시간도 마련된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송정명 목사는 “미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한인 교계가 이 기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관계자들은 한인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미국의 국가기도의 날은 1775년 건국 초기 대륙회의에서 첫 선포된 이후,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 연방 기념일로 제정했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고정된 이 날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국민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이윤준 기자

LA백송교회 새 직분자 임직... “새로운 모험을 향한 부르심”

LA백송교회(김성식 목사)는 4월 19일(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 1명과 권사 3명을 새롭게 세웠다.

이날 임상우 집사가 안수집사로, 이장희, 홍영숙, 최보경 권사로 임직했다.

1부 임직 감사예배는 김종률 목사(남서부지방회 서부감찰장)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박광희 장로(남서부지방회 장로부 회장)가 기도, 김상태 목사(남서부지방회 서기)가 성경봉독(마태복음 14:28-33)을 맡았다. 류광환 목사(남서부지방회 회장, 커넥션교회)가 ‘새로운 모험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저는 이 장면을 모험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보고 싶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다. 그의 생애에 그것은 놀라운 모험의 사건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우리 네 분의 임직자들 새로운 모험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

그는 모험의 본질로, 순종, 믿음, 사랑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우리의 모험은 순종의 모험이어야 한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저자 폴 트루니에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또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모험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어야 한다. 세번째로, 사랑의 모험이어야 한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류 목사는 새들백 교회를 통해, 사랑의 모험의 성격을 설명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새들백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 교회 안에는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 우리 교



LA 백송교회(김성식 목사)가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회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노력을 경주했다. 그것이 오늘의 창의적인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폴 트루니에의 말 “모험적 인생, 변화를 위한 행동의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온다. 모험은 사랑의 본능이다.”를 인용하며, 새로 임직된 이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모험을 감당하기를 당부했다.

2부 임직식은 김성식 담임목사의 집례로 류원선 목사(오렌지중앙교회)가 임직자를 위해 기도한 후, 김성식 목사가 임직자를 소개했다. 권사 임직에서는 표희곤 목사(은혜샘교회)가 기도하고, 정예직 목사(베다니은혜교회), 윤석형 목사(교단경총회장·산샘교회), 김현석

목사(디사이플교회), 안충기 목사(교단총회장·임마누엘 헬로십교회)가 안수기도를 했다.

3부는 김성식 목사의 사회로 권면과 축하 순서가 이어졌다. 김시온 목사(미주성결교회 교단 총무)는 ‘47회 미주 성결교회 총회’에서 백송교회 두 명의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과 이 날 임직을 연결지며, “임직 축제가 되는 것 같다”고 축사를 전했다.

박승로 목사(미주성결교단 총무 역임)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의식 속에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탁월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질 수록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소외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소망한다.”

김기동 목사(세리토스 총만교회 원로)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화중부 목사, 건강한 교회>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목회와 설교, 가정, 경건 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설교에 대한 질문에 화 목사는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지만, 결국 설교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설교자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무익한 종일 뿐이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고 좌절을 많이 느끼고 여전히 아픔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이 영화로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평생 복이 되는지 모르겠

다. 많은 조롱과 배반, 온갖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지만, 어떤 것으로 상쇄될 수 없는 영화로움은 진리를 섬겼다는 것이다. 나같은 사람을 40년 동안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다”고 했다.

강해설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주님과 성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라며 “주제설교도 원문에 충실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목회자 가정의 균형에 대한 질문에는 “이전 세대는 교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하는 시대”라며 “이상

적인 모습만 추구하기보다 현실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평생 오전 시간을 말씀 묵상에 집중해왔다. 가능하다면 오전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말씀과 씨름하라”며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목회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당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장로교 목사처럼 목회한다. 그 말은 장로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며, “은혜가 있으면 약함이 가려지지만, 은혜가 없으면 갈등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연목회, 제1회 언더우드 선교대회

제1회 “남가주 언더우드 선교대회”가 4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와 연목회(연세 목회자회) 주관으로 놀워에 있는 페이스 처치(Faith Church)에서 개최된다.

200여 년 전 조선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을 기리며, 오늘날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이번 선교대회는 1부 예배, 2부 찬양 및 선교사 시상으로 진행된다. 선교상에는 고(故) 에스더 권 선교사, 기드온 동족 선교회(박

상원 목사)가 선정되었고, 그 외 여러 선교 기관과 지역교회 및 목회자를 후원하며, 연세 콰이어 / 이화 코랄 / 카이로스 중창단이 찬양을 드린다.

연목회 정효남 회장은 “이번 대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를 오늘 미국 땅에서도 계속 이어받고자, 또 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고 에스더 권 선교사님 1주기를 기리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 정효남 회장 714.353.8501
주소: 11232 Excelsior Dr, Norwalk, CA 9065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폴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화중부 목사, “자식들 좋은 대학 나오고 잘 컸어요. 그런데...”

LA 한인타운 크랜서 길에 위치한 우리가교회(김은광·백승유 목사)는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라는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말씀사경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서 화 목사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토요일 저녁 메시지를 전하며,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신앙의 본질과 성도의 참된 모습에 대해 강조했다.

화 목사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 목회를 시작할 때는 세상처럼 성공과 인정, 높임을 목표로 삼았지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부르셨다”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우리 안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삶 속에서 환난과 가난, 궁핍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궁핍해 보여도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실상이 보인다”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세상은 외형만 바꿀 수 있



화중부 목사 © 기독교일보

자녀가 교회를 떠난 이유...세상 논리에 갇힌 부모의 회한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어야 세상의 협박에 속지 말라, 믿음의 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결코 넘지 못한다

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중심이 변화된다”고 덧붙였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다.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가 드러난다”며 “내면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며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흔들릴 때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신실한 도움자이다”고 말했다.

화 목사는 계시록 2장 10절을 중심으로 두려움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설명했다. 그는 “성경은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라며 “세상은 공갈과 협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믿음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회를 볼때 너무 부아가 치민다. 세상이 젊은이들을 들볶고 있기 때문”이라며 “젊은이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야하고, 젊은이들을 들볶는 조국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세상은 믿음의 길을 가면 다 잃는다고, 자식들 다 망가진다고 겁을 주지만 한번 믿음의 길을 가보기 바란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을 밀 까부르듯 까부르게 내버려두지 말라”고 했다.

화 목사는 “남서울교회에 부임했을 때 하고 싶은 설교를 다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유학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공부시켰는데, 자식들이 신앙이 좋아졌습니까?’라고 했다”며 “그때 64세, 67세 되는 권사님 두분이 제 방에 따라 들어와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울었다. 그러면서 이러더라. ‘목사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식들 다 잘 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고 했다.

이어 “우리 세대들은 무식하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믿는 맛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예수 때문에 미친 것처럼 교회에 다녔는데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세상이 말하는 논리를 쫓아 가다가 하나님을 잃지 말기 바란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이 최고라고 하며 잘못된 길을 제시하며 키운 것이다”고 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화 목사는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대해 “고난은 짧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화중부 목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다.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을 거쳐 2012년부터 남서울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한국WEC국제선교회 이사장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토마스 맥 기자**

사역자를 위한 교회 브랜딩 세미나

교회 디자인 전문 브랜딩 기업 윤선디자인이 5월 6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미주복음방송공개송에서 브랜딩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1강에서는 ‘우리 교회의 언어 만들기’를 주제로, 교회가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찾고 이를 디자인의 언어로 풀어내는 방법을 함께 나눈다. 2강에서는 실제 교회 브랜딩 사례들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다룬다. 참석자들에게 윤선디자인 스토어 제품, 2026 미주 교회달력, 올인원 에센셜 아크릴 레터링 키트와 절기별 PPT, 후보 템플릿, 예배자막 세트, 포스터 배경 템플릿 등 실전에서 꼭 필요한 자료들이 제공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구름곰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링크(forms.gle/gNrvScWVbDPkqWJA6) 또는 QR 코드를 스캔. 참가 인원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착순 50명에게는 점심 식사와 선물이 별도로 제공된다.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에 안충기 목사

미주성결교회가 제47회 총회를 열고 안충기 목사(임마누엘헬로우십교회)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년 75세 연장 헌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고, 뉴저지지방회와 워싱턴지방회를 하나로 묶는 통합안은 가결됐다.

총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더 웨스턴 샌디에이고 베이뷰 호텔에서 열렸다.

임원선거에서는 부총회장을 맡아온 안충기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안 목사는 “연합과 섬김을 통해 교단의 하나됨을 이루고 영적 회복을 이끄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라며 새 회기의 방향을 밝혔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노명섭 목사(G3교회)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서기에는 이석 목사(새소망교회), 부서기에는 정민영 목사(행복한우리교회)가 각각 선임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정주현



미주 성결교회 신임 임원들 기념촬영. © 한국성결신문 제공

장로(면류관교회)가 선출됐고, 회계와 부회계는 각각 하요한 장로(하와이 갈보리교회)와 정부상 장로(연합선교회)가 맡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의 고령화와 제도 정비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목회자와 직원의 정년을 75세까지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선교부 기능 확대를 위한 헌법 개

정안과 총무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안, 장로 대의원 파송 기준 확대안 등은 헌법연구위원회로 넘겨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선교부가 제안한 지방회 재편 연구안은 해당 지방회들의 반대 속에 기각됐다. 반면 뉴저지지방회와 워싱턴지방회를 통합하는 안건은 가결됐다. 이로써 중부·중남부지방회에 이어 또 하나의 통합 지방회가 구성되게 됐다.

김대원 기자

선교대회에 즈음하여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표현처럼 28년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신 **故 에스더 권 선교사**님의 추모 1주기를 맞아 남가주 언더우드 선교대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신앙유산을 따라 미주 연세인들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관을 네게 주리라” (계2:10)

연목회 회장 정효남 목사 드림
문의 : 714.353.8501

*선교 후원금은 에스더 권 선교사님 유족 또 여러 선교기관과 지역 교회 및 목회자 후원에 쓰입니다.

제23회 북한자유주간, 4월 26일 워싱턴서 개막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과 자유를 위한 국제 연대 행사인 '제23회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열린다.

올해 주제는 "진실이 자유를 이끈다(TRUTH will set them FREE),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주도한다(NORTH KOREANS Are Leading the Way)"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알리고, 탈북민들의 증언과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국제사회 의제로 환기하는 한편,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최 측은 "현재는 북한 인권 운동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 통일부 장관의 통일 인식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퍼레이션 트루스(Operation Truth)' 등 대북 정보 전달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행사는 4월 26일 버지니아 버크 소재 필그림교회 주일예배로 시작



2024년 열린 제21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중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개선 및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를 위한 랠리 ©기독교일보

된다. 이어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현화식이 열려, 탈북민 대표단이 6·25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자유를 위한 헌신을 다짐한다.

4월 28일은 '북한 자유를 위한 기도 및 금식의 날'로 지정돼 북한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같은 날 링컨기념관에서는 '에스터 기도회'가 열리고,

저녁에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된다. 이 기도회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탈북민 목회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미 의회와 연계된 정책 일정도 이번 행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28일 낮에는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린다. 이 청문회는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공화·뉴저지) 의원과 짐 맥거번(Jim McGovern, 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북한

인권: 도전과 전망(North Korean Human Rights: Challenges and Prospects)'을 주제로 북한 인권 현안과 국제 대응 방향을 다룬다.

이어 29일에는 의회 캐년 하원 오피스빌딩에서 국제 포럼이 개최된다.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위한 미국의 정책(U.S. Policy for a Free & Unified Korea)'을 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에서는 최근 북한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와 이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이 주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두 국가 고착화' 흐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하나의 한반도(One Korea)' 비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과 정보 유입 전략, 이른바 '코리아 링크(Korea Link)' 구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영 김(Young Kim, 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아미 베라(Ami Bera, 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의회 라운드테이블이 열려, 탈북민 대표단과 미 의회 인사 간 정책 대화가 이어진다. 또한 5월 1일에는 디펜스포럼재단

(Defense Forum Foundation)이 주최하는 국방·외교 정책 포럼이 열려, 탈북민 대표단이 직접 북한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언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1명의 탈북민 대표단이 한국에서 참여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권 실태를 직접 증언한다. 대표단에는 자유북한방송 김지영 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 후강일 위원장,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을 비롯해 지한나 강제복송 피해자협회 대표, 방송인 이선실, 자유북한방송 기자 배광민, 최근 탈북한 양일철 씨, 최준혁 씨, 이재희 씨, 김가영 씨 등이 포함됐다.

주최 측은 이번 일정 가운데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복송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자유주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북한 인권 행사로, 탈북민 증언과 정책 논의, 기도운동을 결합한 국제 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김대원 기자

이미경 기자 → 1면 기사 <AI 자율 무기>에 이어서

또한 "모든 주요 종교 전통은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가 중대하고 엄숙한 결정임을 가르친다"며 "양심의 문제로서 이러한 결정은 결코 기계에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자율무기는 일반적으로 ▲반자율 시스템 ▲감동형 자율 시스템 ▲완전 자율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반자율 시스템은 인간이 직접 통제하면서 AI가 일부 기능을 보조하고, 감동형 자율 시스템은 필요 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다. 반면 완전 자율 시스템은 사전 프로그래밍과 AI를 통해 스스로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롭(Harop)'이나 튀르키예의 '카르구-2(Kargu-2)'와 같은 배회형 탄약은 드론과 정밀 타격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이러한 분류의 경계를 흐리는 사례로 주목된다. 마코 연구원은 이들 기술이 이미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수의 드론이 스스로 협력해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군집 드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미국이 현재 인간의 감독 없이 AI 자율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관련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의 AI는 생사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우려"라고 밝혔다. "AI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본질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며, 낮은 상황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생명을 끝내는 행위의 도덕적·영적 무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적을 오인하는 등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도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대상은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계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당뇨는 균형이다” 텔로유스 세포신호 기술 주목

현대인에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을 신체 전반의 균형 문제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간은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며,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해 에너지로 사용한다"며 "이 세 기관의 기능적 균형이 무너지면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포 기능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포를 깨우는 기술, 텔로유스
TeloYouth(텔로유스)가 제시하는 '세포 신호(Cell Signaling)' 기반 접근법은 외부에서 특정 성분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체장의 기능, 간의 조절 능력,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 간의 균형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정 기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적인 접근을 권장하고 있다.

사례로 본 변화 가능성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따르면, 꾸준한 관리와 병행했을 때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 당화혈색소(A1C) 수치 개선을 경험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가든 지역에 거주하는 77세 샘 리 씨는 30년 이상 당뇨를 앓아온 환자로,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는 텔로유스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지속한 이후 혈당 관리가 이전보다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샘 리 씨는 "오랜 기간 제한적이었던 식단이 조금 완화되는 것을 체감하며 놀라움을 느꼈다"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

요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
전문가들은 당뇨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균형'과 '지속성'을 강조한다. "당뇨는 단순한 수치 관리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의 균형 문제이며, 회복 또한 지속적인 관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소 6개월 이상, 이상적으로는 12개월 이상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장기간 당뇨로 어려움을 겪어온 환자들에게 이러한 접근은 하나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문의: 714-732-8477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뎅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직원420명, 전문의사(스페셜닥터) 38명 종합병원에서 드리는 종합 건강검진 혜택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산부인과 질 초음파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진료합니다.

- ♣ 뇌MRI, 대장내시경 선택 1
- ♣ 수면 위내시경
- ♣ CT 촬영 (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갑상선 검사. T3, T4, TSH
(갑상선 항진, 저하)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간기능,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등 혈액검사 및 기본검사
- ♣ 산부인과 질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진비용

~~\$1,250~~ **\$43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30불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치료부터 일상까지 당신의 100세 시대를 함께합니다



LIFESTYLE WELLNESS

일상을 채우는 센터메디컬그룹의 문화·생활

노래와 웃음으로, 마음이 젊어지는 시간
문화 체험 공연

부담 없이 움직이며, 무리 없이 즐기는
건강 증진 스포츠 대회

듣고, 웃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채우는 하루
정서·건강 세미나

문의연락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 1 시니어 전문 한인 의료 네트워크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러 대사관에 박태연 선교사 석방 청원... “세뇌 혐의는 조작”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활동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박태연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순교자의 소리(이하 한국VOM, CEO 에릭 폴리, 대표 현숙 폴리)는 22일 오후 서울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올해 70세인 박태연 선교사는 1993년 러시아 입국 이후 33년간 현지 소외계층과 어린이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다. 그는 올해 초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위해 한국행 항공권까지 예매했으나, 출국을 단 일주일 앞둔 지난 1월 15일 하바로프스크에서 전격 체포됐다.

박 선교사는 당초 ‘이민법 위반’이라는 한 가지 혐의로 체포됐으나, 최근 러시아 당국은 두 가지 혐의를 추가로 얹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체포 당시 이미 압수된 건물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비자 없이 거주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현재 박 선교사는 이민관 관리 하의 독방에 감금된 상태이며, 이번 달 말 또는 5월 초에 열린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17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러시아 당국은 공식 재판 절차와 별개로 국영 방송과 교



에릭 폴리 한국VOM CEO(왼쪽)와 현숙 폴리 한국VOM 대표가 러시아 대사관에 박태연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러시아대사관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육부 공문을 통해 박 선교사가 고아원 아이들을 ‘세뇌 교육(Brain-washing)’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VOM 최고 경영자(CEO)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러시아 당국이 박 선교사에게 씌우고 있는 ‘이민법 위반’ 혐의의 세부적 내용인 ‘세뇌 교육’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임을 강력히 성토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러시아 국영

방송과 하바로프스크 교육부는 박 선교사가 아이들을 세뇌 교육한 뒤 한국으로 데려가려 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심지어 아이들을 매매하려 한다는 식의 ‘인신매매(Trafficking)’ 프레임까지 씌워 지역 교육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더욱이 러시아 당국은 지난 4월 어린이전도협회 소

유의 건물을 불법적으로 압수하고, 체포로 인해 비자가 만료된 상황을 역이용해 ‘무비자 불법 거주’ 혐의까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 폴리 대표(한국VOM)의 통역으로 진행된 발언에서 에릭 폴리 목사는 “러시아 국영 방송이 공개한 영상조차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게 웃고 있는 모습뿐이며, 세뇌의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33년 동안 러시아를 위해 헌신한 분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결코 그 오랜 세월 사역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러시아 당국의 주장이 종교적 탄압을 위한 억지임을 분명히 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박태연 선교사는 1993년 러시아 입국 이래 평생 독신으로 헌신하며 현지인들로 부터 두터운 사랑을 쌓아온 모범적인 봉사자였으나, 러시아 당국은 은퇴와 귀국을 앞둔 그를 ‘불법 이주 조작’ 혐의로 부당하게 구금했다. 특히 이번 청원서는 러시아 국영 언론이 보도한 ‘종교 캠프 표적 수사’ 정황을 근거로, 당국이 비자 문제를 발미 삼아 실제로는 박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탄압하고 ‘아동 세뇌’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제법상의 영사 접근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VOM이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석방 촉구 청원에는 한국 기독교인 4,000명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서명 명단에는 러시아 자국 내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사건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부당한 처사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전달된 청원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뿐만 아니라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도 함께 송부됐다. 에릭 폴리 목사는 “우리는 화를 내며 데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밝히는 방식으로 박 선교사님의 무고함을 알릴 것”이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이 부당한 구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는 이미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 표까지 사두었던 상태에서 체포됐다”며 “33년의 헌신이 17년 형이라는 터무니없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한국 교회와 정부가 명예 회복과 석방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박 선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으며 신앙으로 버티고 있으며, 영사를 통해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형구 기자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 임기 개정안 발의된 이유 밝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2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37-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대표회장 임기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회의 말미, 해당 안건에 대해 회원들이 좀 더 신중히 살펴본 뒤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안건이 나오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한기총 임원회는 기존 1년인 대표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고 대표회장은 “대표회장을 1년 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른다. 저도 (연임을 통해) 2년째가 되니 이제 좀 보인다”고 했다. 또 매년 선거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선거를 치르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기본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선거가 없는 한 해는 ‘행정 총회’를 개최해 보다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연임 가능 횟수를 2회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포함해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활동을 감안한 것이라고 고 대표회장은 밝혔다. 그는 “(종지협 활동을) 1~2년 하다가 (기존 대표회장) 손을 떼면 다른 종지협 회원들과 긴밀히 교류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한기총에 손해일 수 있다고

했다. 고 대표회장은 “종지협 의장을 하면 단지 의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종지협을 2년간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성명서도 먼저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며 “나중에 종지협 회원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지협 활동은 대표회장 개인이 아닌 한기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강

조했다. 그러면서 실행위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결정하면 된다. (대표회장 임기 개정이)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선 고경환 대표회장이 총회장을 맡고 있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오순절총회의 가입을 승인했고, 회비를 장기 미납한 일부 회원 교단과 단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제37-1차 실행위원회가 21일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우,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총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발행인

이인규

이사장

폴킴

편집국장

맹창현

고문번호사

정찬용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213) 739 - 0403

E-mail

chdaily@daily.com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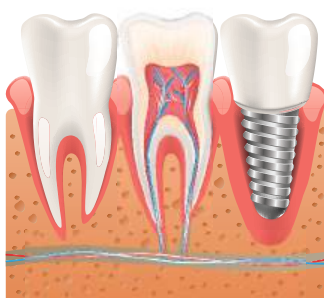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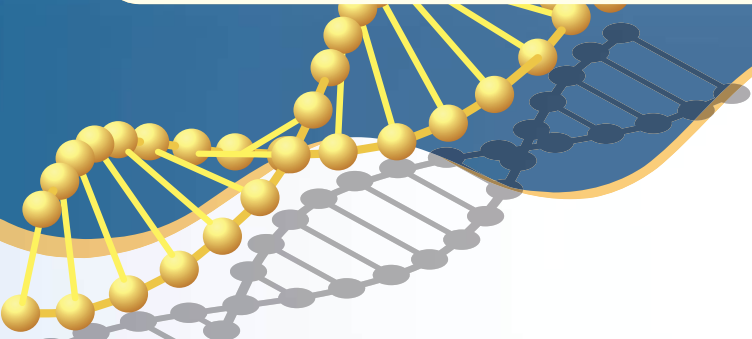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OLYMPIC DENTAL CENTER



사람을 살리는 슈퍼푸드, Teloyouth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Teloyouth의 특징

-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회복
- 생체나이 검사에서 13년 젊어진 사례
- 재구매율 91%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12가지 글로벌 품질인증
- 6가지 임상실 (독일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노르웨이 병원 등)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맞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췌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뿔뿔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i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세포 신호 기술력으로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36배 생산 · 배출 · 활성화하여 건강 회복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 더 이상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 Teloyouth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마음의 재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사업 소개

- 5월 9일(토) 오후 2시
- 예약 필수
- 문의 : 714-732-8477 폴 킴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 폴 킴 (TeloYouth 수석코치)

☎ 714-732-8477



TELOYOUTH

www.TeloHeali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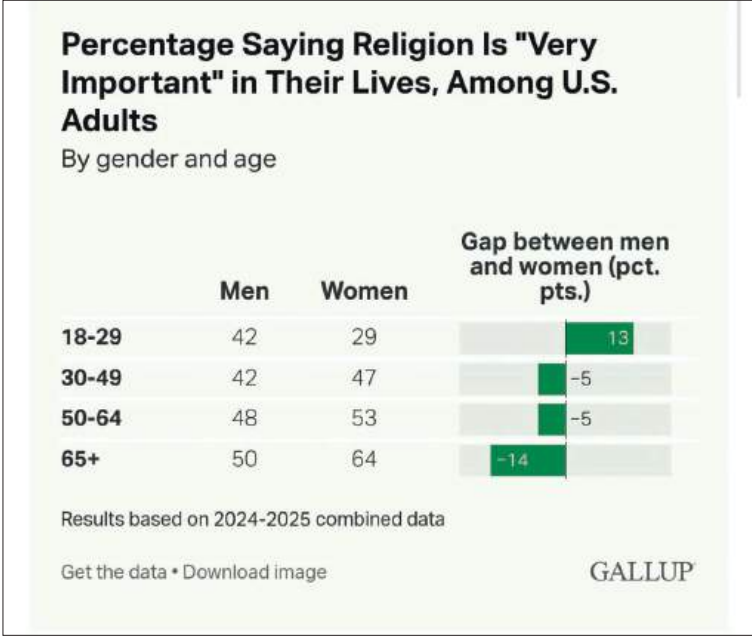
“美 20대, 남성이 여성보다 삶에서 종교 중요시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미국 20대 남성들이 20대 여성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美 전역에서 교회 생활의 광범위한 회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미 공공종교연구소(PRR) ‘2025년 미국 종교 인구 조사’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PRR 보고서는 젊은 남성들 사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갤럽(Gallup)의 2024-2025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대 남성(만 18-29세)의 42%가 삶속 종교의 중요도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very important)’고 답했으며, 이는 2022-2023년의 2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종교에 대한 애착은 약 30%로, 2년 전과 비슷했다.

과거 20대 남성들은 종교성 주요 지표에서 20대 여성들과 동률을 이뤘으나, 이제는 유의미한 차이로 앞서기 시작한 것. 이는 2022-2023년 이후 연령대가 높은 남성과 여성들 사이의 숫자 변화가 미미한 점과도 대조된다.

청년들 가운데 종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20대 남성들은 지난 25년간 조사 중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25년 전인 ‘밀레니엄’ 당시



▲성별·연령별 종교 중요성 설문 결과. ©갤럽

2000-2001년의 43%와 거의 동률을 이뤘다. 나머지 모든 연령대의 여성과 성인·시니어 남성들의 경우,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거나 이미 도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0-2001년부터 2024-2025년까지의 갤럽 종교 데이터의 격년 합계를 기반으로 하며, 연령 및 성별 그룹에 걸쳐 안정적 추세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 뒤바뀐 종교성 성별 격차
2000년대 초반,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20대 여성

비율은 52%로, 43%에 그친 20대 남성들보다 훨씬 많았다. 이 격차는 2000년대 초중반 16%까지 벌어졌다. 그 이후 10년간 꾸준히 좁아지고 있다.

2010년대 중반에는 2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약 5%까지 차이가 줄었고, 양 그룹은 2022-202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여기서 가장 최근 조사한 설문에서 명확한 변화가 나타난 것.

물론 이러한 ‘역전’은 20대에서만 해당되는 현상이다. 30세 이상 성인들 사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여전히 더 종교적이다.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20대 남성 비율은 30-40대(30-49세) 남성 비율과 42%로 비슷하며, 50-64세 48%, 65세 이상 50% 등 더 고령의 남성들보다는 약간 낮다.

반면 20대 여성들은 단연코 역대 가장 종교성이 낮은 집단이 되고 있다.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20대 여성 비율은 29%에 불과했으며, 이는 30-40대 여성 비율 47%보다 무려 18%가 낮은 숫자다. 여성들의 경우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은 50-64세 53%, 65세 이상 64% 등이다.

종교적 정체성

2022-2023년 이후 젊은 남성들이 더 종교적으로 변했지만, 종교를 믿는다는 비율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24-2025년 20대 남성 63%가 특정 종교 소속감(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또는 기타 종교 등)을 보고했으며, 이는 2022-2023년의 61%와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낮은 수치였던 2016-2017년 57%보다는 높아진 것이며, 2012-2013년 이후 20대 남성 기준 최고 비율이다.

20대 남성의 종교적 정체성 표현 비율은 2016-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20대 여성 비율은 60%로 6%나 하락했다. 20대 남성들은 2020-2021년 이후 종교 소속감에

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모든 연령대 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2000-2001년 이후 최저점 또는 그 근처에 있다.

2024-2025년 ‘성별에 따른 종교적 정체성 격차’는 모든 연령대에서 크지 않으며, 65세 이상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약간 앞서고 있다. 여기서는 성별보다 연령대별 차이가 더 크고, 정체성 수준도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있다.

예배 출석률도 증가

20대 남성들의 예배 출석률 역시 종교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자신의 종교 의식(예배)에 참석한다’고 보고한 20대 남성 비율은 2022-2023년과 2024-2025년 사이 7% 증가해 40%에 달했으며, 이는 2012-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대 남성들의 예배 출석률은 지난 2016-2017년부터 2022-2023년까지 약 33%에 불과했다.

20대 여성 예배 참석률도 2022-2023년 이후 소폭인 3% 상승해 39%를 기록했다. 물론 최근 참석률은 2000년대 초반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나이에 남성들과 여성들의 예배 출석률은 최저점 또는 그 근처다.

이대웅 기자

러시아, 기도회 중이던 우크라이나 교회 폭격... 목사 사망, 다수 부상

러시아군이 4월 1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에서 기도회를 진행 중이던 교회를 공격해, 목사를 포함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8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공격을 받은 건물은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온 ‘복음의 집 교회’(The House of the Gospel Church)로, 당시 내부에서는 침례교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측은 “이번 공습은 평화롭게 기도하기 위해 모인 신앙인들을 고의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독교 박해를 다룬 다큐멘터리 <포위된 신앙> 제작진은 사망자가 해당 교회의 목사인 루슬란 우투즈(Ruslan Utyuzh)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복음의 집’ 교회 전경. ©Facebook/In Ukraine

우투즈 목사의 유족으로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례교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인 파벨 응구란(Pavel Unguryan)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부활절을 기념하

기 위해 모여 있었으며, 최소 7~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는 “약 300명 이상의 성도가 이 교회를 ‘영적 고향’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응구란은 “우크라이나 전

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최대 700개의 교회가 파괴됐다”며 “이번 공격 역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 ‘미션 유라시아’(Mission Eurasia)도 해당 교회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 교회는 지하교회로 시작해 지역사회를 섬겨온 공동체”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 콜비 배릿(Colby Barrett)은 이번 공격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도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고정밀 유도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지역사회에 식량과 지원을 제공하는 ‘생명선’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릿은 또한 “러시아가 교회와 종교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해 왔다”며 “전쟁 이후 최소 58명의 성직자가 사망하고 700개 이상의 교회가 파손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키이우의 한 대형 교회가 공격받을 뻔한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수백 명의 목회자가 모여 있던 상황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했지만, 폭발이 근소한 차이로 빗나가 대형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현지 교회 공동체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해당 교회 교인들은 공격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예배에 참석했으며, 약 200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혜진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시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파키스탄 법원, 이슬라마바드 강제철거 제동, 기독교인 2만5천여 명 한숨 돌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위치한 연방헌법재판소(FCC).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비공식 정착촌에 거주하는 2만5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강제 철거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4월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FCC)는 당국에 압박한 철거 조치를 중단하고, 오랫동안 지연돼 온 정착촌 합법화 규정을 4주 안에 확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현지 기독교 공동체는 과거에도 비슷한 법원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결정 역시 실제 집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6일, 아마누딘 칸 대법원장과 아르샤드 샤 판사로 구성된 2인 재판부가 주민들과 아와미노동자당 지도자 아심 사자드 아흐타르 박사가 제기한 청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원인들은 주거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며, 시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리 초반부터 비공식 정착촌 관련 규제 정책이 장기간 마련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수도개발청(CDA)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칸 대법원장은 왜 수도 개발청이 아직까지도 관련 규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는지 추가 범무차관 아미르 레흐만에게 따져 물었다. 레흐만은 수도 개발청 청장 교체 등 행정적 변화가 지연

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조안은 마련돼 있어 승인 절차만 남아 있다고 답했다. 청원인 측은 대리한 파이살 시디키 대법원 변호사는 적법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철거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시하나 동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법적 권리의 문제라며, 대체 거주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슬라마바드 도시계획에 저소득층 정착촌을 위한 별도 조항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레흐만은 공식적으로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1995년 이전 형성된 정착촌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정할 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디키 변호사는 2001년과 2016년에 관련 정책이 도입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이행 없이 철거만 반복돼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체 거주지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도 강제로 내쫓을 수 없다”며 “여기는 이슬라마바드이지 가자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반면 수도개발청 측 변호인 카심 초한은 재정착용으로 배정된 부지가 오남용된 사례가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대체 부지를 받고도 기존 거주지를 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개발청은 10개 정착촌은 인정하고 있지만, 최소 31개 지역은 공공 녹지 등을 침범한 불법 점유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우간다 캄팔라 복음 집회 후 전도사 피살... 신앙 공동체 충격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복음 집회를 마친 전도사가 귀가 도중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기독교 공동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4월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4월 9일 중앙 우간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전도사 알프레드 키텡가(Alfred Kitenga)가 공격을 받아 숨졌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키텡가는 아내 안나 그레이스 나베리에(Anna Grace Nabirye)와 함께 캄팔라 나문구오나(Namungoona) 지역에서 열린 복음 전도 집회에 참여한 뒤 귀가하던 중 공격을 당했다. 사건은 밤 9시 30분경 와키소(Wakiso) 지구 카와알라(Kawaala) 인근 북부 우회도로(Northern Bypass)에서 발생했다.

복음 집회 후 귀가 중 공격 발생... 오토바이 택시로 접근

나베리에에 따르면 부부가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로 보이는 4명의 남성이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했던 기독교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무료로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베리에에는 이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 도중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과 늦은 시간대를 이유로 카상가티(Kasangati) 방향의 다른 경로를 제안했고 부부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한 운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반복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불안해졌다고 나베리에에는 전했다. 잠시 후 다른 남성 3명이 추가로 나타났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집단 폭행과 흥기 공격... 전도사 현장에서 사망

나베리에에는 공격자들이 갑작스럽게 폭

력을 행사하며 부부를 심하게 구타했다고 밝혔다. 공격 과정에서 키텡가는 흉기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나베리에에는 공격자들이 자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뒤 근처에 내려놓아 생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락했고, 현장에 도착한 교회 관계자들은 도로 인근에서 키텡가의 시신을 발견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국은 시신을 검시소로 옮겨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 충격... 전도 사역 안전 우려 확산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키텡가를 헌신적인 전도자로 기억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특히 그는 무슬림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한 교회 지도자는 이번 사건이 기독교 공동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으며 유가족을 위한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다. 당국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동기와 범행 배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이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저녁 시간대 전도 사역을 진행하는 선교팀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장 사역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안과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간다 종교 자유 보장 속 반복되는 갈등 사례

우간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 전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거나 개종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간다 인구 가운데 무슬림 비율은 약 12%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동부 지역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09:00
3부예배(새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EM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O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OMC소방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수요청년부/EM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n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이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현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우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토)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묘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장미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골 3: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론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이드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만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산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월/수/금)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평일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유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동성 커플, 대리모 통해 얻은 아기가 울면서 ‘엄마’라 하자...



©선 맥애널리 인스타그램

한 동성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기와 함께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아동 권리와 가족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 컨트리 음악계 작곡가 겸 가수 셰인 맥애널리(Shane McAnally)와 그의 파트너 마이클 바움(Michael Baum)이 있다. 맥애널리는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SNS에 생후 23주 된 아들과 함께한 영상을 게시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10월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바움은 아이에게 “다다 아니면 파파, 누구를 원하니? 엄마는 싫어. 다다 아니면 파파?”라고 묻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라고 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이에 두 사람은 웃으며 아기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려 한다.

맥애널리는 카메라 뒤에서 “다다(Dada) 아니면 팝(Pop),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라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수십만 건의 반응과 수천 개의

댓글을 기록하며 지지와 비판이 엇갈렸다.

비판 측에서는 친부모 양육권을 강조하는 단체 ‘them 비포어 어스’(Them Before Us)의 설립자 케이티 파우스트(Katy Faust)가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며 “동성 결혼과 대리모 출산이 아이에게 필요한 자연적 가족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파우스트는 특히 “동성 커플의 출산 방식이 성인의 선택과 육구를 우선시하고, 아이가 생물학적 부모와 맺는 관계를 후순위로 밀어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가 아이의 권리보다 성인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도 다시 제기됐다. 비평가들은 여성이 타인을 위해 임신·출산하고 출생 직후 아이와 분리되는 과정 자체가 중대한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고 본다. 반면 지지자들은 사랑과 책임감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양육의 질이 핵심이라고 반박한다.

맥애널리는 비판 여론에 대해 “해당 영상은 자조적인 유머를 담은 콘텐츠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정말 웃긴 상황이었다”며 “생후 몇 개월 된 아이의 반응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시선에 놀랐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독립여성포럼(Independent Women’s Forum) 산하 입법행동위원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아이들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아동의 감정과 정체성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트럼프, 성경 낭독 참여 美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일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독교일보 DB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성경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번 참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아메리카 리즈 더 바이블(America Reads the Bible)’ 행사 일환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행사 주최 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21일 오후 6시경 낭독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역대기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을 계획이며, 해당 본문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낭독 이후에는 신경외과 의사이자 전 주 텍사스개발부 장관인 벤 카슨(Ben Carson)과 그의 아내 캔디 카슨(Candy Carson)이 순서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며, 122개 사역 단체와 약 500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이어서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낭독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성경박물관 월드 스테이지 극장에서 진행된다. 개막 행사에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도 참석했으며, 그는 창세기 24장을 낭독했다. 존슨 의장은 성경을 통해 미국의 도덕적·종교적 유산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번 행사는 버니 파운즈(Bunni Pounds)가 설립한 크리스천인 게이즈드(Christians Engaged)가 주도했으며, 구약성경에서 에즈라가 공적으로 율법을 낭독한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다. 파운즈는 이번 본문이 미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참여가 국가적 치유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주제는 “일주일, 한 나라, 한 권의 책.”(One Week, One Nation, One Book.)이며, 그레이트 아메리카 퓨어 플릭스(Great American Pure Flix)가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일반 대중은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백악관은 개막을 하루 전, 이번 행사를 기념하는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해당 메시지는 메이플라워 도착부터 건국 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 속 성경의 역할을 조명했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취임 선서,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의 제2차 취임 연설, 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 기도, 도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성경의 해’ 선포 등이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피크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 수지 와일즈(Susie Wiles) 비서실장, 폴라 화이트 케인(Paula White-Cain) 등 행정부 인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대법원, 유치원 배제 논란 심리... 종교 자유 vs 비차별 원칙 충돌

미국 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가톨릭 학교들이 배제된 것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동성애 및 성적체성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배제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공개된 명령 목록에서 '세인트 메리 가톨릭 교구 대 리사 로이(St. Mary Catholic Parish et al v. Lisa Roy et al)'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정부가 공공 프로그램에서 종교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다루게 된다.

앞서 2023년 8월, 세인트 메리 가톨릭 교구(St. Mary Catholic Parish)와 세인트 베르나데타 가톨릭 교구(St. Bernadette Catholic Parish)는 콜로라도주가 '보편적 유아교육 프로그램(Universal Preschool Program)' 참여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교회는 프로그램 운영 시 가톨릭 가정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직원에게도 성윤리와 성적체성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에는 가톨릭 아치디오시스 오브 덴버(Catholic Archdiocese of Denver)와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포함됐다. 피고로는 리사 로이(Lisa Roy) 콜로라도 조기아동부 국장과 던 오딘(Dawn Odean) 유아교육 프로그램 책임자가 이름을 올렸다.

콜로라도의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통해 운영되며,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주당 최소 15시간의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한다.

논쟁의 핵심은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적체성, 주거 상태, 소득 수준,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평등 기회 조항'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pixabay

2024년 6월,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조항이 특정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립적 규정이라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종교 기관이 참여 조건으로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를 강제받아서 안 된다는 점은 인정하며 상징적 손해배상 1달러를 인정했다.

이후 2024년 9월, 제10연방순회합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 3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유지했다. 리차드 페데리코(Richard Federico) 판사는 의견문에서 "주 정부는 종교 기반 유치원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했다"며 "유일한 제한은 종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비차별 요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원고 측은 종교 자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베크트 펀드(Becket Fund)의 지원을 받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미경 기자

영 왓퍼드 경찰, 거리 설교하던 목사 물리력 동원해 체포 논란



스티브 마일리 목사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 ©X/스티브 마일

최근 영국 왓퍼드 거리에서 설교하던 기독교 목회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오아시스시티교회(Oasis City Church)의 스티브 마일리(Steve Miley) 목사가 왓퍼드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경찰관 3명에게 제압돼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다.

체포 당시 마일리 목사는 자신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계속 항변했다. 현장 영상에서는 경찰관 중 한 명이 그가 누군가를 폭행했다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지만, 마일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석방된 그는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시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이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영국 경찰에 의해 잔혹하게 다루졌고 희생양이 됐다"며 "체포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거짓'이라며 '누구도 스티브 마일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트퍼드셔 경찰 측은 성명을 통해 "4월 18일(이하 현지시각) 토요일, 60대 남

성이 폭행 및 공공질서 위반 혐의(인종적 또는 종교적 동기가 있는 소란 행위)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남성은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됐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최근 영국 내 거리 설교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디아 무들리(Dia Moodley) 목사는 지난해 11월 브리스톨에서 "종교적 증오 선동"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무슬림 남성들에게 폭행당하고 흉기 위협까지 받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지난 2월 런던 화이트채플에서는 무슬림 남성들이 한 거리 설교자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여성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남성들은 "무슬림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다른 종교의) 설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은 "이 설교자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신미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침내))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양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합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원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물고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아)예배 오후 7:30 한어 찬양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i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토요일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고교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동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부고] 나바호의 친구, 이남종 선교사
향년 64세로 별세

아리조나주 나바호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이남종 선교사가 지난 2026년 4월 14일(화),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64세.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CKSBCA)에 따르면, 고인은 14일 오후 심장마비로 소천했다.

이남종 선교사는 북가주 뉴라이프교회(담임 위성교 목사)로부터 파송을 받아, 아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Flagstaff) 지역을 거점으로 나바호 인디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매진해 왔다. 그는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호흡하며 '나바호 인디언 선교



나바호 원주민을 위해 헌신한 이남종 선교사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센터'를 설립하는 등 원주민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의 곁에는 평생 사역의 동반자였던 이선희 사모와 자녀들이 있다. 미주남침례회 총회와 교계 인사들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이남종 선교사의 삶은 미주 한인 선교 역사의 귀한 자산"이라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장례 일정

유가족과 총회 측은 고인의 평생 사역지였던 나바호 현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로 결정했다. 일시: 4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나바호 인디언 선교센터(Navajo Indian Mission Center),

WMU '건강한 노후,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가 소망소사이어티,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와 공동으로 4월 14일(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Well Aging - Aging in Place"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ging in Place"는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총 5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로, 뇌 건강과 기억력 감퇴에 대한 치매의 경고 신호와 정상적인 노화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이 함께 제시됐다.

두 번째로,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에서는 노년층의 주요 건강



Well Aging, Aging in Place 세미나 © 월드미션 대학교

위험 요소 중 하나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점검했다. 세 번째로, 병원에서 퇴원 후 자립 생활에서 입원 전 준비와 퇴원 이후의 생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다뤄졌다. 환자가 퇴원 후 바로 가정으로 복귀, 추가적인 재활이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원이 환자의 장기적인 회복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과 노인 우울에 관한 세션에서는 노년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므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과 커뮤니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법률 및 의료 계획에서는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의료 결정권자를 지정하고 사전의료지시서를 준비하는 것은 향후 의료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설명되었다. 김민선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 4대 담임 위임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이원준 목사님을 제4대 담임목사로 세우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위임예배를 드린다. 위임예배는 오는 4월 26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드린다.

이날 예배에는 남가주 사랑의교회 1,2,3대 담임인 오정현 목사, 김승욱 목사, 노창수 목사를 비롯해 새들배 교회 리 워렌 목사, Dr. Doug Birdsall (전 로잔대회 총재, Dr. Constantine Cherry (전 IWS 총

장), Dr. Mark Husbands (덴버신학교 총장), Jael Chambers (LBC 부총장), Matt Redman (찬양사역자) 윤대혁 목사, 한기홍 목사, 김한요 목사 등 교계 여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원준 목사.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커리큘럼 재발: '달빛' 검색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l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edu

목동칼럼 (14)

전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세계는 다시 전쟁의 화염이 역사의 지평을 뒤흔드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중동의 긴장은 단순한 국제정세를 넘어 인류의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넘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단2:21)고 선언합니다. 역사의 방향은 인간의 무기나 외교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 성경의 예가 오늘의 이란 땅, 곧 고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절망하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페르시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라”(사 44:28),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사 45:1)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 예루살렘 성

전 재건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의 이란 지역에 남아 있는 다니엘의 무덤 전승 또한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이 적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존과 회복의 흔적을 남긴 역사였음을 보여 줍니다.

역사의 흐름 역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를 보여 줍니다. 근대 이후 인본주의와 실존주의, 무신론적 사조는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절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진보와 문명의 이름 아래 더 깊은 혼돈과 파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과 문명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철학과 문화가 인간 중심으로 치달수록 도덕의 절대 기준은 무너졌고,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전체주의는 전쟁의 불길을 키웠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결국 전쟁과 붕괴를 불러옵니다. 오늘의 세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 위에 평화를 세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만 참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한 목소리로 같은 진리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중동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어

느 편이 승패를 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평화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와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시 89:14)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을 통해 나라와 땅은 평화를 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리며 백성을 압제하는 권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로는 홍해에서 심판받았고, 느부갓네살은 교만으로 낮아졌으며(단 4:30-37),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독하다 그 밤에 나라를 잃었습니다(단 5:30-31).

헤롯 또한 자신을 신격화하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쓰러졌습니다(행 12:23).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증언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영적 교훈 앞에서, 이 시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는 전쟁의 승패보다 더 깊은 영적 현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악한 독재와 폭정, 교회와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자비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쟁의 소문을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평화와 회복의 새 역사를 이루시도록 눈물로 기도

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을 엄숙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전쟁과 외교의 반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백성을 핍박하던 모든 권세와 정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시 2:1). 열방의 군왕들은 스스로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허탄한 계획을 꾸밀 뿐입니다. 그 모든 교만과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악한 권세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와 폭정, 교회와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은 마지막 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시 9:8). 결국 역사의 마지막 승자는 악독한 권력자도, 불의의 제국도, 오염된 사상도 아닙니다. 오직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라 김 칼럼

미국, 성경읽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요!



새라 김 대표
TVNEXT.org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가 지난 역사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에 미국을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세운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책’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250년간 미국을 든든히 지탱해 온 특별한 “바로 그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책은 바로 “성경(The Bible)”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이름은 “America Reads the Bible - 미국, 성경 읽기”입니다.

다. 이 역사적인 행사는 4월 18일 토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간 연속으로 약 500명의 검증된 지도자들이 미국 수도의 중심에 위치한 성경 박물관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낭독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미국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특별히 미국이 깊은 혼돈 속에서 수년간 잃어버리고 빼앗긴 차세대 자녀들의 정체성과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영적 전쟁 가운데, 미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며 궁극적으로 미국 안에 그동안 흔들렸던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성경의 진리가 더 깊이 미국 정신 속에 뿌리내리는 영성 및 각성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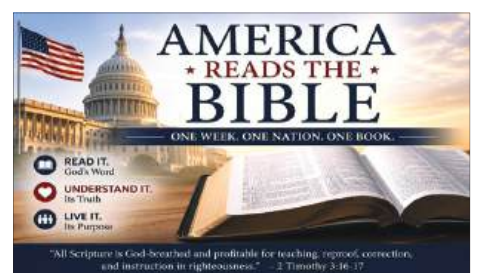
개막식은 지난 4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동부 표준시), 워싱턴 D.C. Capital Turnaround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성경을 낭송한 리더들 중에는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 역사가 데이비드 바턴, Family Research Council의

대표인 토니 퍼킨스, 앨런 잭슨 목사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낭송에 참여하며,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 예배였습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4월 19일부터 7일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 박물관 내 월드 스테이지 극장에서 매일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석 가능합니다. 4월 21일 화요일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Oval Office에서 역대하 7:11-22를 낭독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 하나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검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역대하 7:14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최자인 버니 파운즈는 이 행사를 영적 회복이 필요한 민족에게 울분을 읽어 주었던 에스라 제사장의 성경적 기록을 연상시키는 현대판 ‘에스라의 순간’이라고 묘사하며, 약 500명의 지도자와 122개 사역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니 파운즈는 이 운동이 “국가적 부흥을

촉발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하루 12시간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기념하는 공식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성경이 수행한 역할은 결코 지울 수 없다”라고 전하고 백악관 공식 성명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One Week, One Nation, One Book - 한 주, 한 국가, 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낭독 행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동부 표준시)까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TVNEXT.org에 가시면 링크 및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	--------------------	-----------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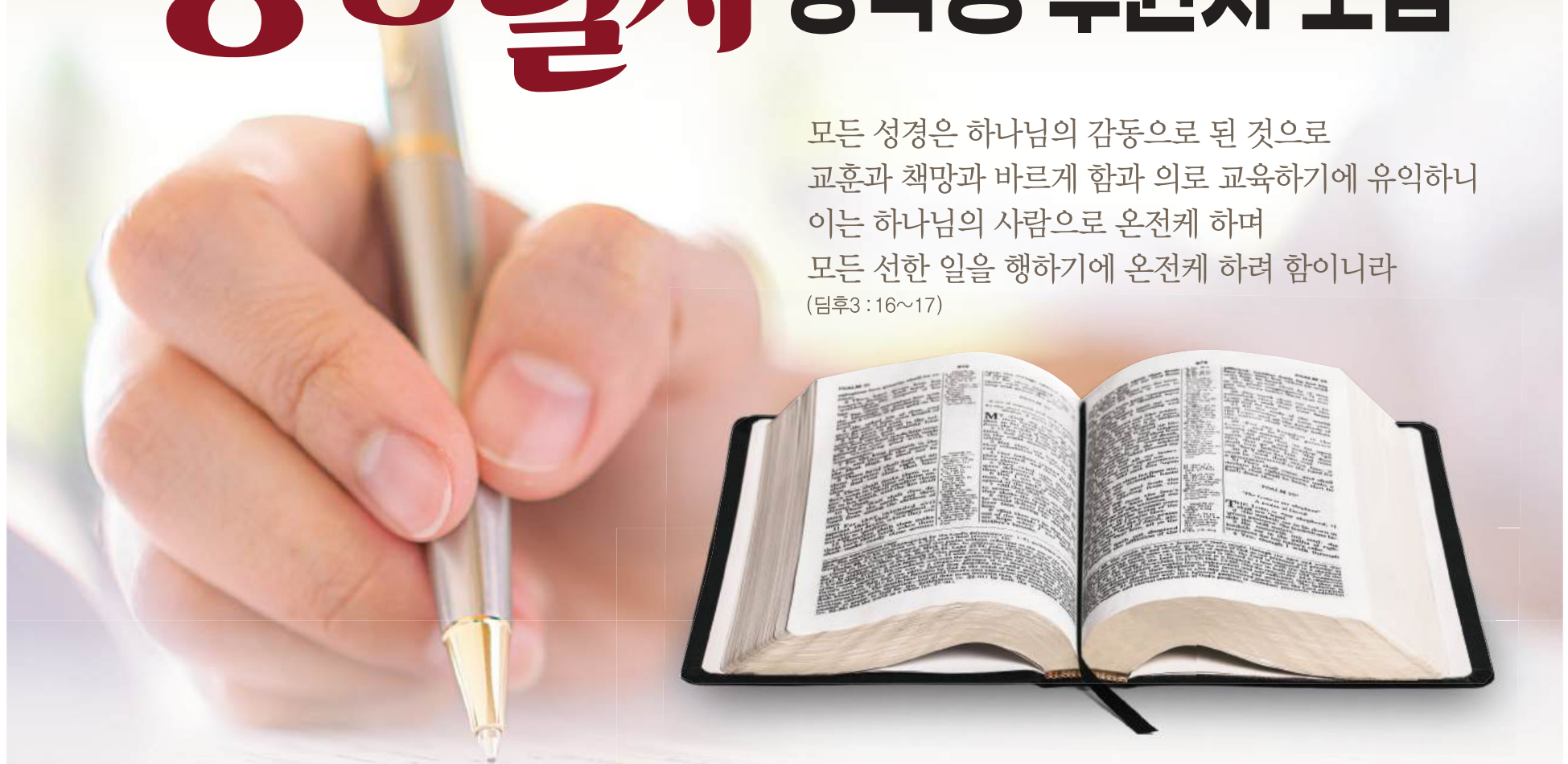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성경 필사 **제3기**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교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강준민 칼럼

고요히 임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모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직 시차에 적응하는 중이지만 제 영혼은 고요한 은총 아래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아이티 선교팀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부활절 어린이 잔치를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의 웃음 속에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모국에서 처음 전한 말씀은 “하늘에서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성령님은 왜 비둘기

처럼 임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비둘기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때,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얼마 후, 비둘기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창 8:11). 비둘기는 새 잎사귀를 통해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죽음의 물이 물러가고, 생명의 숨결이 다시 땅 위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하늘이 땅에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감람나무의 기쁨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 부여졌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삶 위에 부여지는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입니다. 마른 땅에 돌아오는 새 잎처럼, 성령님은 메마른 삶 속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둘째, 비둘기는 진심과 전심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의 눈은 비둘기의 눈으로 묘사됩니다(아 1:15, 4:1, 5:12). 비둘기는 주변의 여러 사물을 산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대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눈은 흠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한 번 사랑하면 평생 그 사랑을 지킨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마음은 진심(眞心)입니다. 가식이 없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한 전심(全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님은 《온전론》에서 “사람에게는 진심(眞心), 하

나님께서는 전심(全心)인 목회”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성령님이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셋째,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비둘기는 온유합니다. 비둘기는 싸우기를 싫어하며, 다투지 않고,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 조용한 날갯짓 속에 하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금슬지락(琴瑟之樂)의 모범입니다. 금슬지락(琴瑟之樂)은 거문고와 비파가 함께 어울려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두 악기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며 조화를 이루듯, 사랑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받아주고, 보완하며, 서로를 세워줄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비둘기의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에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요 14:16). 넷째, 비둘기는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때로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무너진 마음과 흐르는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울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울부짖을 때, 그의 기도는 비둘기의 울음처럼 하늘에 닿았습니다(사 38:14).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다섯째, 비둘기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입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드린 제물입니다(눅 2:24). 비둘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서진 사람, 연약한 사람, 우울한 사람,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롬 8:15-16).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고전 12:3). 날마다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혹시 지금, 홍수 이후의 땅처럼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고, 다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보내십니다. 그 비둘기의 입에 “새 잎사귀”가 물려 있습니다. 작지만 살아 있는 생명입니다. 새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강태광 칼럼

십자가를 거부하는 아이러니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현재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래스라고 대답할 것이다. 현재 옥스퍼드대학 신학부의 역사신학 석좌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옥스퍼드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신학을 더 공부하여 역사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흥미로운 것은 무신론자였던 그가 대학 생활 중에 회심하였고 생화학 전공자였던 그는 대학원 시절에 옥스퍼드 신학대학 과정을 시

작했다. 그리고 생화학 박사학위 학술논문 완성 다음 해에 신학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 포스트 닥터 과정 연구원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에서 연구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계속했다. 과학자 생활을 하던 중에 신학 공부를 계속했던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198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자의 길을 걸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역사신학을 전공하여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학으로 방향을 바꾼 뒤, 그는 중요한 신학 논문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로 부상하였다. 그는 탄탄한 신학적 기반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글들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존 스토틀와 제임스 패크의 계보를 잇는 복음주의 지도자다. 세계복음주의 진영에서도 그는 지도자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역사신학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여 기독교 변증가로 전도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신학을 잘 정리해서 출판함으로써 목회자들에게 설득력있게 복음을 제시하는 모범을 보인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실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다. 우선 같은 고향 출신이다. 둘다 영국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이다. 둘째로 둘다 젊은 날 불신앙으로 방향했다. 루이스는 신앙을 잃었고, 맥그래스는 원래 불신자였다. 셋째는 인문학적 통찰로 복음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둘다 폭 탄탄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설득력 있는 복음 전도로 유명하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종교개혁 시대와 마르틴 루터 연구의 권위자다. 그는 루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다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맥그래스에 의하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존적 고민과 해답이다. 맥그래스는 십자가 정신을 잃은 현대 교회를 질타한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의 신학과 정신이 기독교의 근간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십자가를 거부한다. 현대 기독교가 위기를 맞는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 왜곡이다. 십자가를 승리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다. 그 낮아짐의 끝자락이 십자가다. 로마에서 십자가는 저주요 실패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을 맞으면서 교회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문화를 갖게 되었다. 교회가 십자가를 멸시한다. 세상과 시대적 과제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보이지 않고, 이런 교회가 주목받지 못한다. 오히려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교회가 주목받는다.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아이러니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온가족이 함께하는 바이오텍 줄기세포 비즈니스 미션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라이프 비전

Teloyouth Business Mission인가?

- 1. 가족이 함께 일하는 행복**
한 가족, 한 팀
같은 비전과 목적을 향해 함께 성장
- 2. 리더십 & 코칭 시스템**
코치 라이선스 + 워크샵
→ 마음관리 · 리더십 · 영향력 성장
- 3. Business as Mission(BAM)**
비즈니스 현장이 곧 선교 현장
삶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나눔

20-30대 TeloPet(텔로펫)

- 세계 최초 반려동물 줄기세포 영양 프로그램
- 한 달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기적의 회복 사례”
 - 걷지 못하던 반려견이 다시 걷기 시작한 실제 이야기
 - SNS 시대, 차세대 인플루언서를 위한 최고의 기회
 -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 오가닉 슈퍼푸드 기반

www.TeloHealing.com/pet

젊은 세대에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



40-50대 TeloYouth 비즈니스 기회

-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
- 세포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리는 혁신 기술
- 91% 재구매율 — 강력한 지속 수익 구조
- 독점 세포신호 기술 (Cell Signaling)
- 줄기세포 활성화 최대 36배 가능
- 수만 명의 놀라운 체험 사례
- 권위있는 제3기관들에서의 6가지 임상실험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 일년안에 월 \$10,000 - \$100,000 가능
- 빠르게 확장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www.TeloHealing.com

60대 최고의노후 준비 “은퇴 플랜”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춘 프로그램
- 12개월 머니백 보장
- 기대 효과
 - 수면 · 에너지 회복
 - 근육 · 뼈 건강
 - 혈당 콜레스테롤 · 혈압
 - 스트레스 · 호르몬 균형
 - 위장 · 뇌 · 시력 건강 등등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까지 회복

- 평생 무료제품이 가능한 마일리지 시스템
www.teloyouthkorean.com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축복의 통합 플랫폼

건강 | 경제 | 리더십

5월달 행사 안내 (예약 필수 · 마감일 4월 26일)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Telo Biotech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즈니스 미션 비전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날짜 : 5월 2일(토) 오후 2시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글로벌 줄기세포 비즈니스 설명회

- 날짜 : 5월 9일(토) 오후 2시
(영어로 진행)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닥터 초청 세미나

- 날짜 : 5월 16일(토) 오전 9:45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날짜 : 5월 16일(토) 오후 5:00
24341 El Toro Road, Laguna Woods, CA 92637
- 날짜 : 5월 17일(일) 오후 5:00
681 S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 90005

문의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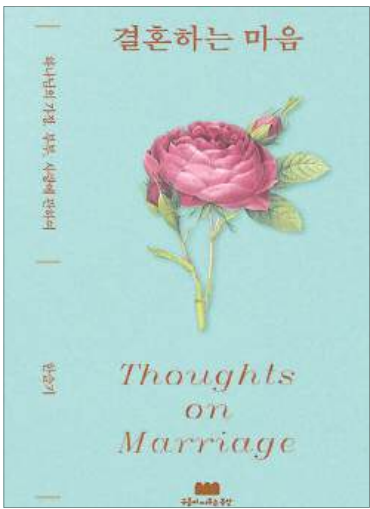
TELOYOUTH

텔로유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아름다운 결혼으로 향하는 길의 동반자

사랑에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결혼 향한 네비게이션



2025년 구름이머무는동안에서 출간된 두 권의 에세이 서적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구현우 목사가 쓴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에 이어, 한슬기 작가가 쓴 <결혼하는 마음>은 각각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것들 속에서 쉽게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생각에 공감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을 발견하게 한다. 아주 드물게 성경 인물을 소개하거나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면서 저자가 체득한 교훈을 나눈다.

특히 <결혼하는 마음> 저자 한슬기는 출판사도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 판매처에서도 잘 소개하지 않고 있어, 배경이나 경력을 알아내기가 무척 힘들다. 오히려 작품을 통해서만 판단한다면, 굉장히 글을 잘 쓴다(경험한 것들을 통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잘 정리하고 표현할 줄 안다는 점에서).

연애와 결혼 과정 가운데 책의 부제가 말하듯 하나님의 가정, 부부, 사랑에 관하여 끊임없이 탐구하고 묵상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독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성경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결혼, 하나가 되다>, 그의나라), 한슬기 작가의 묵상 속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저자는 그것을 교리로 풀어 설명하지 않고, 본인이 결혼생활 가운데 느꼈던 부분을 나누는 형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만큼 이 책은 저자의 많은 고민과 씨름 끝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부부와 사랑에 관한 생각으로 독자를 잘 이끌어주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시처럼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시구에 담긴 아름다운 진리로 결혼에

관한 권면과 위로와 격려와 깨우침을 제공하는 이 책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결혼이라는 온전해지는 길 위에 있는 어느 부부에게도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다만 두 가지 고개를 가우뚱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먼저 '신앙 있는 사람'을 결혼 대상으로 찾는 이유에 관하여 묻는 대목에서 "여러 선택지 가운데 덜 힘들면서 더 좋은 결과가 보이는 길을 고르는 건 지극히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편안함이나 효용이 아니라 결국 '사랑'을 향한다(43-44쪽)"는 말이 전반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한편으로 '신앙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사랑을 향한 선택일 수 있다는 말로 들려 의문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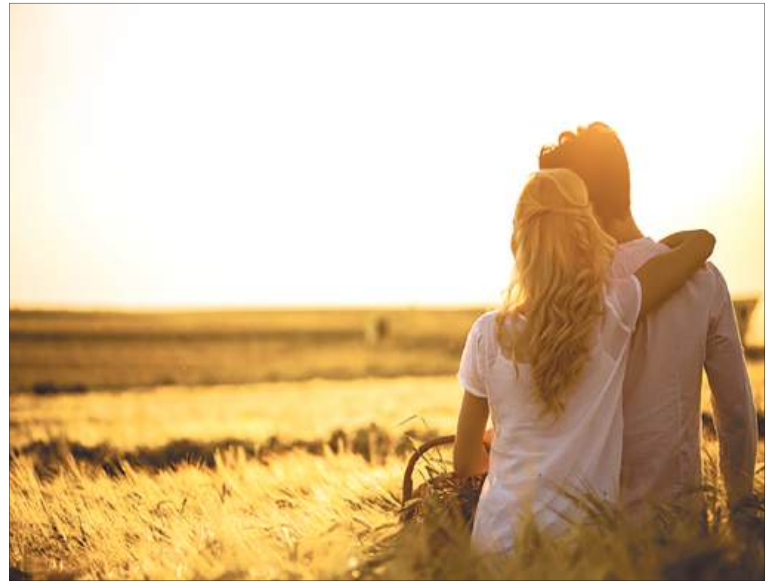
저자가 지적한 대로 "더 완벽한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비신앙인과의 결혼이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의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69쪽)"는 부분인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성경에 명백하게 '명령어'로 주어진 수많은 계명들에 실린 무거운 어중이 낫지 않는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 순종을 강력하게 요구하신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있을 뿐, 배우자가 순종하도록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식의 표현이 더 정확했을 것 같다. 저자가 의도했던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두 가지 의문을 제외하고, <결혼하는 마음>은 독자의 마음을 결혼에 합당한 마음으로 빚어가는 데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이다. 한슬기 작



가가 품은 결혼에 관한 생각은(이 책 커버에 'Thoughts on Marriage'라고 쓰여 있다), 독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부부, 사랑에 관하여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 믿는다.

한나 앤더슨이 <검은한 뿌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슬기 작가는 일상과 성경적 고찰을 잘 연결해 큰 감동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줄 아는 귀한 은사를 발휘한다. 저자는 자신의 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 책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다. 당신에게도 부디, 아름다운 결혼으로 향하는 지도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이 책은 결혼으로 향하는 지명과 도로명 등이 자세히 적힌 지도와 같은 책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서도 처음 가는 길은 많이 헤매지 않는가. 이 책은 그렇게 헤매는 독자 옆에서 먼저 그 길을 헤매다 올바른 길을 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아름다운 결혼으로 향하는 저자의 목소리에 독자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가는 그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조정인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니이다 사도행전 2:28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ACTS, 2:28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1.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2.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3.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4.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

E.K. ART GALLERY
 http://www.ek-artgallery.com/ 문의 : 323-272-3399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서성록, 한 점의 그림] 평양 시대 박수근

신앙적 정체성 예술에 투영했던 <만종>의 밀레와 박수근

전통적 의미 종교화가 아니지만 예술 활동, 기독교 신앙 버팀목 굵은 필선과 투박한 질감 표현 공훈과 뛰어난 공감 능력 바탕 둘 모두 인간에 대한 깊은 통감 기독교적 평등 사상, 중요 열쇠

억압과 감시, 그리고 경제적 수탈이 일상화된 일제시대, 강원도 산촌(山村)에서 성장한 소년 박수근(1914-1965)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훗날 한국 미술의 괄목할 만한 화가로 성장했다. 그의 재능을 높이 산 교사, 지인 등이 도움을 주었지만, 그의 예술 활동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의 작품에는 종교적 도상이나 모티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교회를 모티브로 한 몇 점의 소묘가 존재하지만, 이를 본격적인 작품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이 그를 전통적 의미의 종교적 화가로 분류하지 않는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밀레, 루오, 고흐의 작품처럼, 박수근의 그림에도 깊은 신앙심이 흐르고 있다. 이는 '기독교 정신의 안경'을 통해 피조세계와 인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의 작품에 담긴 기독교 정신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따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훈과 뛰어난 공감 능력에 기반한다. 박수근의 꿈은 F. 밀레(1814-1875)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다. 밀레의 <만종

>을 접하고 "하나님, 저도 나중에 커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밀레는 파리에서 바르비종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주해 평범한 농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이삭 줍기>, <만종>, <씨 뿌리는 사람> 같은 명작이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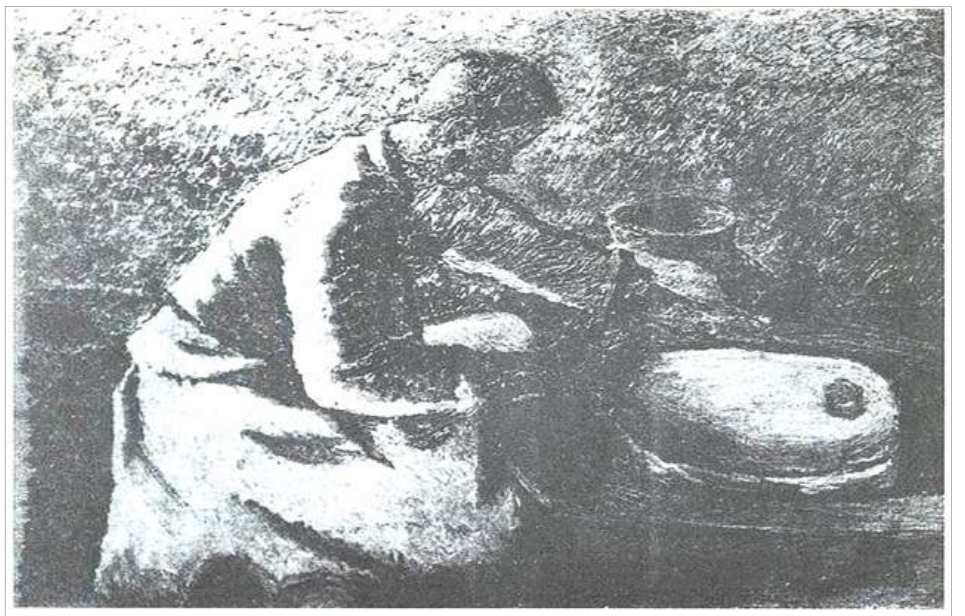
특히 <만종>(The Angelus)은 해 질 녘 들판에서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수평의 지평선과 교차되는 수직의 인물은 땅과 인간의 조화로운 교감을 상징하며, 모자를 벗은 남자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은 경건한 신앙심을 드러낸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박수근은 <만종>의 종교적 내용과 농촌 배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박수근의 어린 시절은 밀레가 신문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송순일은 밀레를 '아름다움의 외형보다 추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화가(동아일보, 1924. 11. 17)'로, 김용준은 '위대한 전원의 사상가(동아일보, 1936. 5. 5)'로 칭했다.

당시 밀레의 복제물이 널리 보급됐고, 박수근 또한 <만종>을 복제물을 통해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가 살던 양구 지역은 '바이블 루트'로 불리며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파견된 곳이었기에, 밀레의 명화 복제물이 보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수근의 예술은 훗날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그가 평생 추구했던 예술혼의 진가를 인정받았다. 100년의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시골 사람들의 삶에 주목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1932년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수채화 <봄이 오다>는 햇살 좋은 겨울날 기와 집 앞에서 빨래를 너는 여인과 앞뜰에서 모이를 쪄는 닭을 그린 작품이다. 이는 잔설 덮인 발두령을 배경으로 농촌의 모습을 차분히 묘사한 그의 첫 작품이다(이 작품은 1939년 유화로 다시 제작됐다). 1934년 발표한 수채화 <겨울 풍경> 또한 시골 풍경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1936년 선전 작품 <일하는 여인>을 기점으로, 그의 작품은 풍경화



▲박수근, 맺돌질하는 여인,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1940.

에서 인물화로 전환된다. 이 작품은 아이들 등에 업은 여인이 절구질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그림을 계기로 그는 농촌 풍경에 더욱 집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그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밀레의 그림에서 농부가 주인공이었듯, 박수근의 그림에서는 농촌 아낙네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됐다. 청년기에는 농촌의 노동하는 사람들을, 청년에는 도시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렸다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937년 <봄>은 16회 선전 출품작으로, 아이를 업은 여인이 소녀와 함께 나물을 뜯는 장면을 모티브로 했다. 1938년의 <농가의 여인>과 1940년의 <절구질하는 여인>은 모두 허리를 숙이고 집안일에 몰두하는 여인을 그렸다. 이 두 작품의 인물은 화가의 어머니와 부인이다. 태평양 전쟁 시기 발표된 선전 작품 <맺돌질하는 여인>(1940), <맺돌질하는 여인>(1941), <실을 뽑는 여인>(1943) 또한 같은 흐름에 있다고 추정된다. 아내 김복순 여사는 뜨개질로 살림을 도우며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로 크게 성공하도록 내조하는 것을 임무(김복순, 『아내의 일기』, 현실문화, 2015, 104-105쪽)'로 여겼다. 일하는 여인을 주제로 한 연작을 통해, 신산했던 '시대의 초상'을 엿볼 수 있다. 애국지사나 투옥된 장면, 전투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고된 일을 하는 서민들을 통해 시대상을 비추고 있다. 맺돌질하는 여인이나 들에서 나물 캐는 여인들, 절구질하는 여인 등은 단골 소재였으며, 박수근에게 그것들을 그리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박수근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다 생생한 현실의 인간을 포착하고, 그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탄생한 작품을 추구했다. 존 러스킨(John Ruskin)의 말대로 "인간의 영혼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박수근은 '위대한 일'을 해낸 화가임이 분명하다. 박수근은 농부들의 삶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밀레와 유사하지만, 화풍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밀레가 아카데미학 데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화가인 반면, 박수근은 독학으로 꿈을 이룬 자수성가형 화가이다. 밀레는 파리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해 충실한 모델링 기법을 익히며 입지를 다졌다. 비록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지만, 당시 익힌 데생 수업은 그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프랑스 화단에 살롱풍의 미술이 성행했기에, 밀레는 인물을 정확한 관찰을 통해 사실적으로 옮기는 데 매진할 수 있었다.

반면 박수근은 굵은 필선과 투박한 질감으로 자신만의 조형 체계를 구축했다. 어린 시절 동네 야산과 들, 마을을 돌아다니며 거둬온 사생을 통해 그림을 익혔다. 두 사람의 사물 재현 방식을 비교하면 밀레는 형태의 견고성에 색채감을 보였지만, 박수근은 화강암 같은 투박한 질감에 단색 톤을 결합한 향토적 회화 세계를 추구했다. 두 사람 모두 신앙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그것을 예술에 투영했다. 두 사람의 예술을 특징짓는 공통점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감이었다. 기독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그들은 이웃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체'로 여겼다. 이러한 시각은 F. 밀레 전에 활동했던 피테르 브뤼헬, 니콜라스 마스, 프란스 할스 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백 년의 시차를 초월한 이 위대한 사상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 모든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기독교적 평등 사상이 근대사회의 인권 개념의 초석이 된 사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박수근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박수근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인식했으며, 그들의 삶 주위를 맴도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박수근의 그림을 보며 잔잔한 감동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박수근, 일하는 여인, 제15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1936.

담임목사 청빙 공고

남가주 샬롬교회는 15년 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캘리포니아 토랜스에 위치한 장로교단(PCA) 소속 교회로서 현재 담임목사님의 정년 은퇴 일정에 맞추어 목양 / 선교 및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섬기실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1. 자격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
- 2) 목회 경력 5년이상 이신 분
- 3) 미국 장로교(PCA)교단 가입에 문제 없으신 분
- 4)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5)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 하신 분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 최종 학력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2) 목회 비전 및 본인과 가족 소개서(신앙간증 포함)
- 3) 최근 한국어 설교 동영상 2편(website link도 가능)
- 4) 추천서 2부

3. 기타사항

- 1) 이메일: Shalomsearch@yahoo.com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 2)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청빙이 완료된 후 마감 합니다.
- 3) 서류 제출과 질문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4) 서류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결정이후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1004.com)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AI, 도구 넘어 선교 구조 변화 이끈다”

한국선교신학회(회장 허준)가 18일 오전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AI와 선교'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안대학원대학교와 세쉴세 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선교의 접점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선교신학회 'AI와 선교' 2026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 참석자들이 18일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선교신학회 제공

행사는 유근재 총장(주안대)과 최동규 교수(서울신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선교와 AI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선교상담, 생성형 AI의 목회 적용, 디지털 선교 전략, 그리고 가상세계 속 선교 가능성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 AI 기반 선교상담과 인간 내면 회복의 신학적 접근

박한나 교수(주안대)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정구조상담(ESCT)의 선교상담학적 적용 연구'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감정 구조와 신앙 회복 과정을 조명했다. 그는 "인간의 타락을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닌 존재 인식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경 속 하나님의 질문이 인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특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향한 영적 부르심"이라며 "이 질문을 통

해 인간은 자기 은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술이 선교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AI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아니지만, 선교사가 자신의 감정 구조와 방어 기제를 인식하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I 기반 선교상담은 성령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전이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기술은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은혜의 영역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 생성형 AI와 목회 효율성... "행

정 부담 줄이고 사역 집중 높인다"

김은하 교수(서울신대)는 생성형 AI가 여성 목회자의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AI 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는 행정 효율성과 사역 집중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 효율성이 사역 집중도 향상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AI의 핵심 가치가 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있음을 보여줬다.

김 교수는 "생성형 AI가 여성 목회자에게 '디지털 사역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며 "다만 기술 도입은 신학적 성찰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

하며,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술은 목회의 인간적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AI 시대 선교 패러다임 전환... "도입이 아닌 구조 재설계 필요"

정용구 선교사(KWMA AI, 디지털 선교 실행위원회 부위원장)는 AI 시대를 맞은 교회와 선교계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선교 현장이 기술 확산이 정체되는 'AI 케즘' 구간에 진입했다"며 "일부만 활용하는 구조로는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선교사는 "앞으로 AI가 단순한 콘텐츠 생성 도구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피지컬 AI'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교 방식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교회와 선교계가 기술 도입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실제 적용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를 특정 전문가의 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평신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화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기존 사역 구조에 기술을 덧붙

이는 것이 아니라, 사역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선교사는 데이터 기반 사역, 플랫폼 중심 연결, 신학적 윤리 정립, 단계적 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향후 5년이 교회와 선교 현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세계와 AI NPC... 새로운 선교지 가능성 제시

송용섭 교수(서울기독대)는 시뮬레이션 게임 속 AI NPC를 선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가상세계의 선교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과 AI NPC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새로운 선교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상세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인간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AI NPC를 선교의 도구이자 동역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인간 고유성 왜곡이나 현실과 가상의 혼동이라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AI NPC를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비인간 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동 기자

“中,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하여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하라”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0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과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중국 내 탈북민 구금 실태와 복송 이후 예상되는 인권 침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합은 성명서에서 특히 중국 내 탈북민 구금 상황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 3월 발표한 '북·중 기관의 재증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탈북민을 구금하는 과

정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남은 음식을 섞어 주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금시설 내에서는 하나의 고무 대야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탈북민을 복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연합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노동, 영양실조, 처형 등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강제 낙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

태 등 비인도적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 탈북민의 인권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민연합은 "탈북

여성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속거나 강요당하여 중국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게 강제 결혼형태로 팔려가거나, 성매매

업소, 유혹업소 등으로 인신매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여성들은 매매된 형태로 팔려가 사실상 노예와 같은 강제 가사 노역에 시달리며, 남편이나 브로커로부터 폭력과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노동 착취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며 "법적 신분 부재는 거주 이전의 자유,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는 건강권 그리고 자녀의 교육권 박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복송 및 인권유린 실태는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탈북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금때문에 CD를 어뉴이티로 옮겨야 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59세 싱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수지 박 입니다. 제가 11남매 중 막내라서 어머님 연세가 93세로 연세가 많습니니다. 다행히 어머니님이 기력이 없으실 뿐 큰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고, 저도 하는 일이 재택근무 전문직이라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계획입니다. 저에게는 은퇴 적령기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노느니 일하자고 생각해도 아마 70년에서 까지도 일하는 게 가능하고요, 인컴은 높고 대신 자녀도 없고 해서 돈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 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제가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빼고도 여기 저기 CD에 넣어 놓은 돈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 6만불 정도를 냈습니다. 저희 CPA님은 제가 401k도 엄청 많이 넣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이빙 아카운트에 있었던 돈을 괜히 CD에 넣었나 싶을 정도로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지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문선영씨의 유튜브를 봤고 거기에 어뉴이티가 나오던데 어뉴이티가 세금을 안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문선영씨는 저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찾아 뵈기 전에 과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수지 선생님, 수지 선생님의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CD에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낸 것만 6만불 정도라면 일단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CD는 아시다시피, 계약이 끝나고 찾게 되면 반드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년이나 8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CD 상품을 찾아서 옮겨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그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보통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은데, 그래서 CD와 비교되는 플랜이 어뉴이티입니다. 먼저 CD의 목적은 1년이나, 8개월 등등 계약기간 이후에 내가 그 돈을 사용해야 할 자금이 다 있을 때 단 돈 나마 이자를 받는 단기 플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지 선생님께서 내가 그 돈을 1년 후에도 찾아 쓸 일이 없다면 어뉴이티라고 검색하시면 주루룩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어뉴이티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뉴이티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 채널에서 어뉴이티라고 검색하시면 주루룩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어뉴이티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뉴이티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 채널에서 어뉴이티라고 검색하시면 주루룩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어뉴이티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뉴이티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 채널에서 어뉴이티라고 검색하시면 주루룩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어뉴이티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지 선생님 이 CD에 있는 돈을 은퇴 후 인컴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첫번째 어뉴이티, 무엇보다 돈을 넣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돈을 들어 8년 후부터 100세까지 따라 따라 매달 마치 소셜연금 처럼 인컴으로 지급되는 고정인컴 어뉴이티를 하나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내가 찾아 쓰지 전

까지 절대 텍스트를 내지 않고 계속 돈을 불리다가 내가 찾아 쓰겠다 싶은 시기 부터는 100세까지 혹은 내가 사망할 때 까지 고정 인컴을 받아서, 결국 내 돈을 세배 정도까지 총 찾아 쓰는 플랜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는 일을 오랫동안 할 계획이고, 인컴도 높을 뿐 아니라 소액과 401k 등을 통해서 은퇴 인컴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된다 싶을 시면 두번째 어뉴이티, 복리로 이자를 받으며 매년 늘어나고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찾아 쓸 수 있는 어뉴이티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뉴이티 역시 내가 찾아 쓰지 않는 한 이자를 매해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은 불리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CD에 가지고 계신 금액이 많은 만큼 수득 첫번째 고정인컴 어뉴이티와 두번째 복리로 자라는 어뉴이티를 나눠서 넣어 골라야 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다 쓰고 사망하느냐 누구에게 남겨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통폐합이 같은 건강이 걱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어뉴이티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이나 5년 정도 CD보다는 길지만 일반 어뉴이티 계약기간 보다 짧은 어뉴이티를 원하신다면 또 고정이자를 받는 MYGA 갑박 따박 매달 마치 소셜연금 처럼 인컴으로 지급되는 고정인컴 어뉴이티 플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매년계약이 끝날 때 마다 세금 내는 것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 어뉴이티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만 수지 선생님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보고 어떤 어뉴이티에 얼마나 나눠 넣을 지 등등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뉴이티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와 저희 매니저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에 얼마나 나눠 넣을 지 등등은 상담

4월 FINANCIAL LITERACY MONTH 시리즈 세미나 (3) CD와 어뉴이티

CD에 잠길 것이냐, 어뉴이티 배에 올라 7-8% 이자의 섬으로 항해할 것이냐

- 당장 쓰지 않는데 아직도 CD에 계십니까?
- 7-8% 이자만 꺼내 쓰고 평생 원금은 남기고 싶으신지요?
- 상품 선택이 아닌, 나에게 맞는 제대로 된 재정상담과 플랜을 원하시는 분

CD와 어뉴이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4월 24일 (금) 저녁 7시
 3435 Wilshire Blvd. 14FL, Los Angeles, CA 90010
 혹은 줌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626-827-9599로 문의하세요.

문선영의 머니토크



DAVID'S TENT
다윗의 장막

REPENTANCE • RESTORATION • REVIVAL

다윗의 장막

— DAVID'S TENT —

70 HOURS NON-STOP
PRAYER & WORSHIP

JOIN US

70시간 연속 기도회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

7월 27일(월)~ 7월 30일(목)

July 27(Mon)-July 30(Thu)

📧 70pray@gmail.com ☎ 626-810-3455 🌐 www.70pray.com



[함께하는 기관] 미주복음방송 | CABC | 굿네이버스 |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FMB회장: 주민호 목사) | SEED 선교회
WMU(남종성 교수) | CCC(박종술 목사) | NextGen English Ministry(손경일 목사) | 기독교일보
모퉁이들선교회 | 미주성결신학교 | Kalam Mission | 뉴욕모자이크교회 | 토렌스조은교회 | 아름다운교회
더크로스교회 | 오렌지가나안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이준영 목사) | 세계등대교회 | 원더풀커뮤니티교회